

OPEC, 원유 90달러 넘으면 증산

로이터, 적정가 70-80달러 돌파 ... 각료들 생산확대 검토 가능성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95달러에 달하면 증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된다. OPEC 관계자는 로이터 전화 회견에서 “유가가 90-95배럴이 되면 증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가가 90-95달러가 되면 (OPEC) 각료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비아의 OPEC 대표인 쇼크리 가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불투명한) 변동”이라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이 실질적이며 계속될 수 있는 추세는 아니며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만을 보고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OPEC이 증산을 위한 유가 목표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OPEC은 1년여 이상 공식 산유량을 동결해오다 2009년 중반부터 세계경제 회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증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OPEC은 3월 개최된 각료회담에서 석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다음 정기 각료회담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국제유가는 13일 런던시장에서 선물이 배럴당 83.80달러로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OPEC 산유국이 적정가라고 앞서 밝힌 70-8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4>